

우산국 ‘우해왕’ 전설의 스토리콘텐츠 개발과 활용방안*

여세주**

|| 차례 ||

1. 서론
2. 자료의 이해와 해석
 - 1) 우해왕 이야기의 전설적 흡인력
 - 2) 역사적 상황과 우해왕 이야기
3. 스토리의 재구성
 - 1) 시공간적 배경과 인물의 성격
 - 2) 스토리 라인
4. 결론-활용방안

【국문초록】

이 연구는 우산국(于山國, 울릉도)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우해왕 이야기’의 스토리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우해왕 이야기’는 여러 전설에 파편화되어 흩어져 있다. <우해왕과 풍미녀>, <사자바위1,2>, <비파산과 학포> 등의 전설이 우해왕과 관련된 이야기들이다. <우해왕과 풍미녀>는 우산국을 시공간적 배경으로 하는 전설로, 우해왕 이야기의 근간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이나 구체적인 증거물 확보로 전설로서의 지위를 한층 분명하게 확보하는 쪽으로 변형되면서 서사구조를 점차 확대시켜 갔다. 울릉 남면의 자연물 사자바위(사자바위1)와 신라의 우산국 정벌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결합한다. 이것은 다시 <우해왕과 풍미녀> 전설과도 섞인다. 자연물 사자바위와 역사적 사실의 결합에

* 이 논문은 『우산국 문화의 현대적 가치 창출을 위한 컨설팅 사업』(문광부, 2009)에서 이루어진 세미나 발표문을 다시 수정·보완한 글이다.

** 경주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는 이사부 장군이 전함에 신고 왔다는 나무사자와 사자바위가 연결고리로 작용하였고, 이들과 <우해왕과 풍미녀>와의 결합에서는 우산국 폐망 모티프의 공유가 연결고리 구실을 했을 것이다. 자연물 사자바위(사자바위1), 역사적 사실, <우해왕과 풍미녀> 전설을 놓고 볼 때, 어느 것과 어느 것이 먼저 결합되고 뒤에 결합된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들이 섞이면서 시공간성을 확보하고 <사자바위2>를 비롯한 투구봉 및 비파산 전설 등에서도 같이 모티프의 확장을 가져온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전설적 지위를 확보한 ‘우해왕 이야기’는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도 매우 설득력 있는 서사적 논리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와 같은 인문학적 해석을 바탕으로 ‘우해왕 이야기’의 스토리 라인을 재구하고, 인물의 성격이나 시공간적 배경도 정리해 두었다. 나아가서, 문화콘텐츠 산업화를 위한 대체적인 제안을 이 논문의 결론으로 삼았다. 즉, 이 스토리 콘텐츠를 근간으로 삼아, 연극이나 영화 제작, 장면별 퍼포먼스나 레이저 쇼, 스토리텔링이 있는 우산국 궁성 재현과 체험관광 등 다양한 문화산업화가 울릉도 관광산업에 매우 유용하리라는 사실을 제안해 두었다.

주제어 : 우산국, 우해왕 이야기, 울릉도, 스토리 콘텐츠, 문화관광

1. 서론

문화콘텐츠 개발에 관한 원론적 차원의 논의들은 짧은 연구 역사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아울러, 문화콘텐츠의 상품화를 위한 실질적인 개발 작업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개별적인 문화원형¹⁾의 탐색이나 문화콘텐츠산업화를 위한 문화적 연구 성과의 축적은 아직 미미하다. 그것은 개별적 문화원형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의미의 연구에 부여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단시일 내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정

1) 가공되지 않은 ‘문화콘텐츠 자료’를 ‘문화원형’이라 하기로 한다. ‘문화원형’의 개념에 대한 논의로는, 배영동의 『문화콘텐츠화 사업에서 ‘문화원형’ 개념의 함의와 한계』(『인문콘텐츠』 제6호, 인문콘텐츠학회, 2005)를 참조할 만하다.

이 이렇다 보니, 문화원형 연구와 문화콘텐츠 활용이 상호 연계적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문화원형과 그 스토리텔링에 대한 충분한 연구 없이 성급하게 상품화됨으로써 문화콘텐츠의 가치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개별적인 문화원형의 스토리텔링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신화·전설·민담·야담 등의 스토리는 여러 형태의 문화원형 가운데서도 문화콘텐츠 개발의 중요한 영역으로 주목 받고 있다. 스토리 문화콘텐츠의 개발은 일반적으로 '①스토리 원형의 수집→②스토리 원형의 서사적 재구성→③상품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①은 기초자료 조사 단계이며, ②는 인문학적 연구 단계이고, ③은 문화콘텐츠의 개발 및 운용 단계이다. 스토리의 디지털화나 스토리뱅크의 구축은 어느 단계에서나 가능하고 필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스토리 원형'이란 가공되지 않은 스토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문화원형이라는 용어를 원용하여 '스토리 원형'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스토리 원형으로는 이미 조사되어 화석화되어 있는 문헌 설화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구비전승으로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을 직접 수집하여 활용할 수도 있다.

문화콘텐츠 개발 과정에서 스토리 원형의 서사구조를 재구하는 작업은 인문학자의 몫이다. 서사구조의 재구성이란 이미 존재하는 스토리 원형을 서사적 논리에 따라 충실히 이해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이야기는 파편화되어 흩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동일한 이야기가 전승과정에서 다양하게 굴절된 채 전승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각각의 차이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고, 어느 것이 원형에 가까운 스토리인가를 분석할 이유도 없다. 흩어져 있는 모티프들은 한데 모으고 차이가 나는 모티프들은 서사미학적으로 더 완결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여 재구해 나가야 한다.²⁾ 서사적 모티프의 총집에 그칠 것이 아니라, 문학적 해석과 아울러 사회적·역

사적 상황 등의 시대적 상황을 토대로 한 문화적 해석을 통하여 스토리를 재구성하는 단계에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야기 수집가들에 의해 모아진 스토리 원형에 대한 이러한 해석 작업을 통해 서사적 논리성과 개연성을 부여하고, 서사의 시공간적·문화적 환경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스토리 뱅크’의 구축은 어느 단계에서나 필요하다. 스토리 원형이나 가공된 스토리 콘텐츠는 그것대로 스토리뱅크를 구축해 두는 것이 활용하기에 편리하다. 스토리뱅크의 구축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보 축적을 통해 스토리텔러들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스토리 뱅크는 스토리를 해체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이다. 개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콘텐츠를 예측하여 최대한 데이터필드(data field)를 만들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사건 및 모티프, 사건별 주제, 캐릭터, 복식, 시공간적 배경, 풍속, 생활양식 등을 데이터필드로 만들어 디지털 환경에서 다각적인 검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³⁾

이 연구는 울릉도 지역, 즉 우산국(于山國)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스토리 문화콘텐츠의 개발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우산국은 늦어도 3세기경부터 고려 현종 때까지 존재해 왔던 해상왕국이었다.⁴⁾ 문화란 어떤 집단의 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생활양식 또는 의미 체계라고 할 때, 우산국 시대의 문화로 거론할 수 있는 것들은 많지 않다. 일부의 고분군과 여러 편의 설화가 조사되어 있을 뿐 생활 유적 등에 대해서는 지표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조사·보고되어 있는 문화원형만이라도 여러 가지 형태의 문화적 공정을 통해 새롭게 그 가치를

2) 여세주, 『경주 스토리투어 개발 전략 연구』, 『문화콘텐츠연구』(창간호), 경주대 경주 문화콘텐츠산업센터, 2003, 167쪽 참조.

3) 스토리뱅크 구축에 따른 데이터필드에 관해서는, 함복희의 『야담의 문화콘텐츠화 방안 연구』(『우리문학연구』, 제22집, 우리문화회, 2007.)를 참고할 만하다.

4) 김호동, 『독도·울릉도의 역사』, 경인문화사, 2007 참조.

부여하거나 드높이는 문화콘텐츠 개발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울릉도 관광이 자연 환경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울릉도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문화관광으로 이끌어 가는 문화콘텐츠의 개발은 더욱 유익한 작업으로 떠오르게 된다.

울릉도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스토리로, 전설인 '우해왕 이야기'⁵⁾와 <김인우와 동남동녀> 역사 인물 '안용복 이야기' 등을 거론할 수 있다. <김인우와 동남동녀> 전설이나 '안용복 이야기'는 시대적 배경을 우산국 시대에 두고 있지 않는 후대의 이야기이지만 우산국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전설이다. 이들 이야기에는 우산국의 존재적 본질에 대한 인식이나 자긍심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체성의 문제는 문화원형에 대한 해석의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는 셈이다.

이 연구는 우산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우해왕 이야기'⁶⁾의 스토리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문학적 해석을 통해 파편화되어 있는 우해왕 관련 전설의 전승과정을 살펴보면,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바탕으로 삼아 그 스토리 라인을 재구성하고, 활용 방안을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스토리 콘텐츠 개발 방법은 울릉도의 대표적인 문화원형인 <김인우와 동남동녀> 전설이나 '안용복 이야기' 등의 재구성에서도 원용될 수 있을 것이다.

5) '우해왕 이야기'란 <우해왕과 풍미녀>, <사자바위>, <비파산과 학포> 등의 전설(여영택, 『울릉도의 전설, 민요』, 정음문고167, 정음사, 1979 중판 참조)에 흩어져 있는 이야기에 대한 인문학적 해석을 통해 재구성된 스토리라인을 가리킨다.

6) 울릉도의 여러 이야기를 대상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스토리뱅크 구축을 위한 필드작업은 하지 않는다.

2. 자료의 이해와 해석

우산국 시대의 스토리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가? 울릉도에는 수없는 자연물 전설들이 전승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산국 시대부터 존재하였던 이야기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법도 하다. 특히, ‘우해왕’에 대해서는 역사적 기록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근대에 와서 어느 누군가에 의해 창작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야기는 구비전승 되는 성격을 지니므로, 문헌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존재의 신뢰성에 회의를 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해왕’ 이야기는 우산국에 뿌리를 두고 있는 스토리라 할 수 있다. 특히, 전설은 구체적인 증거물을 바탕으로 하는 이야기이므로, 전설을 향유했던 사람들이 그 생활권 안에 속하고 있는 전설적 증거와 함께 그것에 얽힌 이야기의 존재를 믿었기에 전승될 수 있었다.

‘우해왕 이야기’는 여러 전설에 과편화되어 흩어져 있다. <우해왕과 풍미녀>, <사자바위>, <비파산과 학포> 전설을 모아서 하나로 꿰어내면 제법 방대한 분량의 ‘우해왕 이야기’가 이루어진다.

1) 우해왕 이야기의 전설적 흡인력

(1) 풍미녀와의 사랑에 빠진 우해왕과 우산국의 패망

<우해왕과 풍미녀>는 우산국을 시공간적 배경으로 하는 전설이면서, 우해왕 이야기의 근간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전설이 전승되어오다가 문헌에 정착된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문헌자료는 최태식의 구전을 1971년 여영택이 채록하여 출판한 『울릉도의 전설·민요』⁷⁾에 실려 있다. 이 자료를 먼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7) 정음문고164, 정음사, 1974.

지금의 울릉도를 옛날 신라시대에는 우산국(于山國)이라 불렀다. 우산국이 가장 왕성했던 때는 우해왕(于海王)이 다스릴 때라고 한다. 우해왕은 기운이 장사요, 신체도 건장했으며, 바다를 마치 육지처럼 주름잡고 다녔다. 작은 나라이지만 바다에서는 힘이 세었다.

이때 우산국에 와서 가끔 노략질하는 왜구가 있었다. 그 왜구의 본거지는 주로 대마도였다. 우산국의 우해왕은 왜구의 본거지를 찾아서 군사를 거느리고 대마도로 갔다.

대마도의 왕을 만나서 담판을 하였다. “앞으로 우산국을 침범 안 하리다.” 하는 항서를 받았다. 우해왕은 대마도에서 푸짐한 대접을 받았다. “고맙소. 서로 사이 좋게 지냈시다. 푸짐한 대접을 받아서 고맙기 한이 없소. 내일이면 떠나려 하오.” 하고 우해왕이 대마도를 작별하려고 하는데 대마도의 왕이 무엇인가 할 말이 있는 듯 주저주저하였다.

“아마 할 말이 있으신 모양인데 해 보시오” 하였더니, “사실은 저에게 딸이 셋이 있사운데 그 가운데서도 셋째 딸이 인물도 마음씨도 뛰어나니다. 풍미녀라고 부르지요. 이 풍미녀가 우해왕을 따라가고파 하는데 어찌 하실지요?”

우해왕은 뜻밖의 일에 놀랐다.

“생각해 봅시다.”

“풍미녀가 우해왕을 뵈옵고부터는 왕을 모시며 충성을 다하겠다고 굳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만약 왕이 데려가지지 않으시면 풍미녀는 굶어 죽겠다고 까지 합니다. 부디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마음이 굳어졌다면야.”

우해왕은 풍미녀를 데리고 우산국으로 돌아왔다.

풍미녀의 용모와 마음가짐이 단정하여 왕후로 삼기에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한 우해왕은 풍미녀를 왕후로 삼기로 했다. 우산국 백성들은 우해왕과 풍미녀를 받드느라고 온 힘을 다하였다.

우산국 백성들은 풍미녀가 우산국의 왕후로 들어왔고부터는 우해왕의 마음이 전과 달라짐에 놀랐다. 전에 같으면 왕은 백성들의 생활을 걱정하기를 제일 같이 하였지마는 풍미녀를 왕후로 앉히고부터는 사치를 좋아했다. 풍미녀가 하는 말이면 무엇이건 들어주려 했다. 우산국에서 구하지 못할 보물을

풍미녀가 가지고 싶어 하면, 우해왕은 신라에까지 신하를 보내어 노략질을 해 오도록 하였다. 신하 중에 부당한 일이라고 항의하는 자가 있으면 당장에 목을 베거나 바다에 처넣었으므로, 백성들은 우해왕을 매우 겁내게 되었고, 풍미녀는 더욱 사치에 빠졌다.

“망했구나.”

“풍미 왕후는 마녀야.”

“우해왕이 달라졌어.”

이런 소문이 온 우산국에 널리 퍼졌다.

신라가 쳐들어오리라는 소문이 있다고 신하가 보고를 하였더니, 우해왕은 도리어 그 신하를 바다에 처넣었다.

“왕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자는 죽는다.”

이 꼴을 본 신하는, 되도록 왕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 했다.

풍미녀가 왕후가 된 지 몇 해 뒤에 우산국은 망하고 말았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우해왕’은 우산국의 강성한 시대를 열었던 왕이었다고 했다. 우해왕은 신체가 건장하고 용력과 항해술이 뛰어났다고 하면서 그 영웅적 면모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대마도를 정벌하고 대마도의 공주 ‘풍미녀’를 데려와 왕비로 삼았다고도 했다. 전설적 증언력이 부족하긴 하지만 전설의 주인공이 되기에는 충분하다.

이 전설은 우해왕의 영웅다운 면모와 행적을 이야기 하고, 강대한 국가가 망하게 된 사연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강대한 해상왕국 우산국이 멸망하게 된 것은 왕비 풍미녀의 사치벽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풍미녀와의 사랑에 빠진 우해왕이 민생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우해왕이나 풍미녀를 바라보는 이야기꾼들의 시각은 양면성을 지닌다. 풍미녀의 마음이 단정했다고도 하고 사치벽이 심했다고도 했다. 우해왕은 대마도를 정벌하는 대단한 업적을 남겼으나, 풍미녀를 왕비로 맞아들이고 난 이후에는 달라졌다고 한다. 즉, 풍미녀를 위해 신하들로 하여금 신라에

가서 노략질하도록 하는가 하면, 충언을 하는 신하들을 죽이거나 바다에 던져 넣는 포악성을 드러내고, 백성들의 생활은 전혀 돌보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이야기꾼들의 애증이 섞여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결과, 우산국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파국을 삼았다. 대마도의 여인인 풍미녀의 사치벽까지 사랑했던 우해왕이 신하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백성들의 지지를 상실해 버린 까닭에, 우산국은 결국 망하고 말았다는 이야기꾼들의 속내가 전설의 줄거리 속에 내포되어 있다.

그런데 역사전설임에도 불구하고, 시공간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청중들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어야 하는 전설로서의 지위를 충분히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즉, 사실처럼 믿도록 하기에 충분한 구체적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역사적 기록에서도 '우해왕'이 어느 시기의 우산국 왕이었던지는 정확한 기록을 찾을 수 없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우산국이 신라에 복속된 512년 당시나 그 이후의 왕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

(2) 전설적 지위 확보와 시공간성의 구체화

이야기꾼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현장에서 자신의 기억력을 되살려 서사구조의 근간을 최대한 유지시키려고 하면서도 서사구조의 논리를 짜 맞추거나 청중의 반응을 기대하려고 이야기를 변형시키고자 한다. 이야기꾼은 이야기의 전달자이면서 작가라고 하는 까닭이 이런 데 있다.

'우해왕 이야기'도 그 전승과정을 추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야기 전승의 보편적 원리에 따라, 이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이나 구체적인 증거물 확보로 전설로서의 지위를 한층 분명하게 확보하는 쪽으로 변형되면서 서사구조를 점차 확대시켜 갔을 것이다. 사자바위, 우해왕, 역사적 사실이 쉽게 결합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경향에서 가능했을 것이다.

울릉도 남양 앞바다의 사자바위에 얽힌 전설은 두 종류가 전하고 있다. 하나는 단순히 사자 모습을 닮은 바위의 명칭유래담이고, 다른 하나는 우해왕 이야기와 역사적 사실이 결합된 이야기이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전자를 <사자바위1>⁸⁾이라 하고, 후자를 <사자바위2>⁹⁾라 하자. 사자바위 전설은 단순한 명칭유래담이었겠으나,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 실제의 역사적 사건과 결합되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 사료를 먼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于山國이 스스로 와서 복종하고 해마다 토산물을 바치기로 하였다. 우산국은 명주의 바로 동쪽 바다 가운데 있는 섬으로 혹은 울릉도라고도 한다. 땅의 면적은 사방 100 리인데, 지세가 험한 것을 밟고 항복하지 않다가 이찬 이사부가 하슬라주의 군주가 된 뒤, 우산인들은 어리석고 사나우므로 위력으로써 굴복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계략으로써 복종시키기로 하였다. 곧 나무로 사자를 많이 만들어서 전선에 나누어 싣고 그 나라 해안에 이르러 거짓말로 ‘너희들이 만약 항복하지 않는다면 이 맹수를 풀어 모두 밟아 죽일 것이다’고 하였다. 그 나라 사람들이 무서워서 곧 항복하였다.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지증왕 13년 6월)

阿瑟羅州(지금 명주) 동해 가운데 순풍으로 이틀거리에 于陵島(지금은 羽陵이라고 쓴다)가 있으니 주위가 26,130보이다. 섬의 오랑캐가 그 바다물의 깊음을 밟고 교만하여 조공하지 않거늘 왕이 이찬 朴伊宗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치게 하였다. 이종이 나무로 사자를 만들어 큰 배에 싣고 위협해 말하되 ‘항복하지 않으면 이 짐승을 놓으리라’ 하니, 섬의 오랑캐들이 두려워서 항복하였다. 이종을 포상하여 그 州伯으로 삼았다. (『삼국유사』 권1, 기이 1, 지철로왕)

8) 여영택, 앞의 책, 132~136쪽.

9) 앞의 책, 156~160쪽.

『삼국사기』에서는 이사부가 하슬라주의 군주가 된 이후에 우산국을 정벌하였다고 하였고, 『삼국유사』에서는 박이종이 우산국 정벌의 공으로 하슬라주의 군주가 되었다 하였다. 그러나 이 기록의 핵심 내용에서는 차이가 없다. 이사부와 박이종은 두 이름의 동일인이다. 이사부가 계락을 써서 우산국을 항복시켰다는 것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내용인 것이다.

이야기꾼들이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자연물 사자바위를 쉽게 결합시킬 수 있었던 연결고리는 '사자(獅子)'이다. 우산국이 신라의 침공을 받을 때 이사부 장군이 전함에 싣고 온 나무사자와 사자바위가 연결고리로 작용하여 이야기꾼들로 하여금 두 이야기의 연결을 가능케 하였을 것이다. 즉, <사자바위2>에서 이사부가 바다에 던진 나무사자가 화석이 되어 남양 앞 바다의 사자바위가 되었다고 했다. 역사적 사실과 사자바위의 결합을 보여주는 전설이다. 이 전설에 이르러, <사자바위1>은 역사적 사실과 결합하면서 '512년'이라는 시간성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역사적 사실은 <사자바위1>과 결합되면서 '서면 남양 일대'라는 공간성을 확보 하게 되었다.

'우해왕'이 어느 시대의 왕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역사적 인물이었는지도 의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꾼들은 우해왕을 이사부에 의해 정벌 당했을 때의 왕이라고 믿고 있다. <우해왕과 풍미녀> 전설에서 우해왕 때에 우산국이 패망하였다고 하였고,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서는 512년 이사부에 의해 우산국이 패망했다고 하였으니, 우해왕이 이때의 왕이었다는 추론은 어렵지 않다. <우해왕과 풍미녀> 전설과 역사적 사실이 우산국의 패망이라는 모티프를 공유하고 있으니, 두 이야기는 연상 작용을 통해 쉽게 결합될 수 있었을 터이다. <사자바위2>가 그러한 결합의 결과 일 터인데, 우해왕 이야기와 역사적 사실이 단순히 통합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서사를 더욱 확장시켜 나아갔다.

<사자바위1>,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의 역사적 사실, <우해왕과 풍미녀> 전설을 놓고 볼 때, 어느 것과 어느 것이 먼저 결합되고 뒤에 결합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역사적 사실, <사자바위1>, <우해왕과 풍미녀>가 서로 섞이면서 <사자바위2>처럼 모티프의 확장을 가져오고 시공간성을 확보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것과 어느 것이 먼저 결합했느냐의 문제는 대수롭지 않다.

이와 같은 전승과정을 거쳐, ‘우해왕 이야기’는 서사적 확장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시공간적 배경을 확보하는 변화를 가져왔을 것이다. 그 결과, 이 이야기는 보다 정교한 서사적 논리성과 매우 구체적인 역사적 근거를 획득하기에 이른다. 서사적 구조가 보다 확장되고 전설로서의 충분한 지위도 갖추는 쪽으로 전승된 셈이다.

이와 같은 전승과정을 통해 나타난 전설이 <사자바위2>인데, <우해왕과 풍미녀> 전설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모티프들은 다음과 같다.

- ① 우해왕과 풍미녀 사이에는 딸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이 별님이었다.
- ② 우산국의 노략질을 당한 신라의 백성들이 우산국 토벌을 왕에게 호소했다.
- ③ 신라왕은 이사부로 하여금 우산국을 쳐서 노략질을 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왕명을 내렸다.
- ④ 이사부가 군사를 이끌고 우산국으로 쳐들어왔다.
- ⑤ 나팔소리가 나서 우해왕이 바라보니 수많은 돛단배가 우산국을 향해 오고 있었다.
- ⑥ 우해는 우산국의 배들을 모두 모으고, 자신이 앞장을 서서 싸웠다.
- ⑦ 신라의 군사는 여러 날 동안 지친 나머지 상륙조차 못해 보고 쫓겨났다.
- ⑧ 이사부는 돌아와 왕에게 패전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피를 쓰라는 주문을 받는다.
- ⑨ 이사부가 우산국을 칠 피를 널리 모아, 다시 우산국에 쳐들어왔다.
- ⑩ 우산국에서도 군사 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 ⑪ 이번에도 군사력으로는 우산국이 신라군에 뒤지지 않았다.
- ⑫ 이사부가 배에 싣고 간 사자를 보이고 사자의 입을 통해 불을 뿜었다.

- ⑬ 우산국 군사들이 사자를 보고 두려워하여 항복할 뜻을 보이자, 우해왕은 항복하고 말았다.
- ⑭ 이사부는 사자 한 마리를 기념으로 바다에 던졌는데, 사자바위가 되었다.
- ⑮ 우해는 딸 별님을 이사부의 첩으로 보내고 가난한 어부로 살아갔다. (또는, 자결하였다고도 한다.)

<사자바위2> 전설은 역사적 사실을 구체적인 사건으로 형상화시켜 놓은 모티프들로 이루어져 있다. 전승과정에서 상상력이 풍부한 이야기꾼을 만나, 역사적 사건이 스스로의 몸집을 부풀린 결과라 하겠다. <우해왕과 품미녀> 전설과 <사자바위1> 및 '역사적 사실'이 함께 결합한 결과로 얻어진 서사문학적 효과는 기대 이상이 되었다.

<우해왕과 품미녀>나 '역사적 사실'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모티프로는, 우해왕에게는 별님이라는 딸이 있었다는 것, 그 딸을 이사부의 아내로 바쳤다는 것, 그리고 우해왕이 가난한 어부로 살아가거나 자결하였다는 것 등이다. 역사적 사실과 결부되면서 사실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는 쪽으로 이야기는 붙어났고, 역사에서 확인할 수 없는 모티프들까지 보태어 나갔다.

전승과정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현재까지도 지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야기 전승의 이런 속성을 울릉군청 홈페이지에 소개된 '사자바위 전설'에서도 이미 확인할 수 있다.

이사부가 먼저 항복을 권했지만, 우해왕은 한번 이긴 터라 이를 업신여기고 사자(使者)마저 죽여 싸움을 부추겼다. …(중략)… 우산국왕은 “내가 죽더라도 그 불사자로 하여금 영원히 우산국을 지키게 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바다에 몸을 던졌다. 신라 이사부는 우해왕의 소원을 덜어주기 위해 목각사자를 물에 띄웠고, 그 순간 하늘에서 뇌성벽력이 쳐 목각사자와 우해왕이 던진 투구가 돌로 변해서 사자암과 투구봉이 되었다.

여영택이 1971년에 채록한 <사자바위2> 전설에서는 없었거나 달랐는데, 윤색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생성된 모티프로, 우해왕이 신라군의 사자(使者)를 죽였다는 것, 불사자로 우산국을 지키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우해왕이 벗어던진 투구가 투구봉이 되었다는 것¹⁰⁾ 등이 기존의 문헌자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내용이다.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자료를 제시한 쪽에서 새로이 윤색하였거나, 구연되어 오던 <사자바위2>의 또 다른 하나로 파악된다.

(3) 나팔봉·투구봉 및 비파산·학포 전설과의 결합과 왕비 풍미녀의 죽음

‘우해왕 이야기’는 전승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서사적 틀을 갖추어 갔지만, 우산국 파멸의 근원적인 원인 제공자였던 풍미녀에 대한 귀결은 갖추지 못하다가, 나팔봉과 투구바위·비파산과 학포 전설¹¹⁾과도 결합하면서 전설적 증거와 모티프들을 더욱 확장시켜 갔다. 나팔봉은 나팔을 불어 신라의 침공을 알린 곳이며, 투구 모양처럼 생긴 투구봉은 우산국의 장군 또는 우해왕이 항복하는 뜻에서 투구를 벗어던진 곳이라 했다. 비파산은 우해왕이 왕비 풍미녀의 죽음을 슬퍼하여 100일 동안 12시녀들로 하여금 비파를 치게 한 곳이고, 학포는 풍미녀의 제사를 마치던 날 기르던 학이 날아간 방향이라고 해서 붙여진 지명이라고 한다. 우해왕 이야기가 여러 지명 전설과 결합하면서 확장된 모티프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신라가 우산국을 침공할 때 나팔봉에서 나팔을 불어 이 사실을 알렸다.

10) 여영택이 1971년에 채록한 <나팔바위와 투구봉> 전설에서의 투구는 우산국과 신라의 전투에 참여했던 어느 장군의 투구였는데, 여기에서는 우해왕의 투구로 전환되어 있다. 여영택, 앞의 책, 162쪽 참조.

11) 여영택, 앞의 책, 161~162쪽.

- ② 우산국 장군이 투구를 벗어 던져 신라에 항복했다.

 - ① 풍미녀는 대마도에서 올 때, 12시녀와 학 한 마리를 데리고 왔다.
 - ② 풍미녀가 죽자 우해왕이 슬퍼서 뒷산에 병풍을 치고 백일 제사를 지냈는데, 열두 시녀로 하여금 매일 비파를 뜬게 했다.
 - ③ 백 일째 되던 날, 풍미녀가 기르던 학이 학포 쪽으로 날아갔다.

우산국이 패망한 근본적인 원인은 풍미녀의 사치 때문이라고 하면서도 풍미녀의 죽음에 이르러서는 풍미녀가 신성시되어 있다. 풍미녀의 제사를 끝내는 날에 비로소 학이 날아갔다고 함으로써, 학은 풍미녀의 영혼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신화적 흔적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친 비약일지 모르겠으나, 새는 신화에서 여성상징으로 작용하기도 한다.¹²⁾

우산국을 패망에 이르게 한 부정적인 인물로 비난했던 풍미녀가 마지막에 와서 신성시되고 있는 불일치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풍미녀에 대한 인식은 <우해왕과 풍미녀>에서도 혼란스럽다. 용모와 마음가짐이 단정하였다고 하는가 하면, 지나치게 사치를 좋아했다고 하기 때문이다. 풍미녀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엇갈리는 데서 이야기꾼들의 숨겨진 고뇌와 자존심을 엿볼 수 있다. 우산국 후손들인 이야기꾼들은, 신라에 의한 우산국의 패망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불리한 조건에서, 우산국 패망의 원인을 대마도 여인의 사치에 돌릴 수밖에 없는 고뇌를 드러내면서, 우산국 왕 비로서의 단정함과 신이함을 내세우는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려 했다.

그런데, 그런 풍미녀가 죽었다고 함으로써, 던져진 문제가 온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죽었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자신의 사치벽 때문에 우산국이 패망했다는 것을 깨닫고 자결을 했다거나, 증오하던 어느 장군에게 살해되었다는 등, 이야기꾼들이 풍미녀의 죽음에

12) 동명왕 신화의 '유화'나 박혁거세 신화의 '알영'도 새와 연관되어 있다.

대해 상상력을 발휘할 만도 한데 서사적 결말을 끝내 놓쳐버렸다. 따라서 풍미녀가 언제 어떻게 죽었느냐 하는 결말이 소상하게 덧붙여질 때, ‘우해왕 이야기’는 거의 완결된 서사구조를 갖추게 될 것이다.

‘우해왕 이야기’는 지속적인 변모를 그치면서 전승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전승되어 갈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이 상태로도 이 스토리는 창작소재의 하나로서 그 가치가 충분하다.

2) 역사적 상황과 우해왕 이야기

(1) 우해왕 시절의 풍비했던 우산국

우산국이 언제 성립된 국가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울릉도에 사람들이 들어온 시기를 서력 전후까지 올려 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¹³⁾되기도 했지만, 이 시기를 국가 성립의 시기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울릉도에 대한 기록이라고 알려져 있는, 『三國志』魏志 東夷傳 沃沮條(245년, 고구려 동천왕 19년)의 기록¹⁴⁾에 의하면, 늦어도 245년경에는 울릉도 사람들이 집단적인 종교의식을 거행하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인신공희(人身供犧) 의식은 부락단위가 아니라 국가단위의 종교의식이었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늦어도 3세기 중반에는 울릉도에 성읍국가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13) 서울대학교 박물관, 『울릉도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1, 서울대학교 박물관학술총서 6, 1997.

14) “옥저 촌老的 말에 따르면 그 나라 사람이 언젠가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하다가 바람을 만나 수십 일 동안 표류하다가 동쪽의 섬에 표착하였는데 그 섬에 사람이 살고 있었으나 언어가 통하지 않았고 그들은 해마다 칠월이 되면 소녀를 가려 뽑아서 바다에 빠뜨린다.”고 하였다. 이 기록에 나오는 옥저의 늙은이가 어느 계통의 민족인지는 알 수 없으나, 예맥족의 한 사람이라고 본다면, “언어가 통하지 않았다”는 기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가 지워지지 않는 의문으로 떠오르기도 한다.

우산국은 천혜의 지형지세와 상당한 군사력을 갖춘 해상왕국으로 존재 하였다. 『삼국사기』(지증왕 13년, 512년)에 “우산국은 명주의 바로 동쪽 바다 가운데 있는 섬으로 울릉도라고도 한다.”¹⁵⁾라는 기록이 있어, ‘우산국’의 존재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섬사람들이 바다의 깊음을 믿고 교만하여 신하로서 복종하지 아니했다.”¹⁶⁾는 『삼국유사』 지철노 왕조의 기록을 통해, 우산국은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상당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해왕과 풍미녀> 전설의 주인공 우해왕은 ‘우산국이 가장 왕성했던 시절의 왕’으로서 역사적 설득력을 갖추기에 충분하다.

(2) 대마도와의 우호적 동맹과 신라의 우산국 공략

지증왕은 동해의 제해권과 동해안 지역을 확보하는 데 힘써¹⁷⁾, 재위 5년(505년) 삼척에 실직주, 재위 12년(511년) 강릉에 하슬라주를 설치하고 이사부(異斯夫)를 이들 지역의 군주(軍主)로 삼았다.¹⁸⁾ 그리고 재위 13년(512년)에는 이사부로 하여금 우산국을 정벌토록 하였다.¹⁹⁾

이사부는 태종이라는 별명도 가진 내물왕의 4대손에 해당하는 왕족으로서, 지증왕이 동해안 지역의 제해권 장악에 선봉장으로 삼았던 인물이다.²⁰⁾ 우산국에 대한 두 번의 정벌이 이사부에 의해서 직접 이루어졌을 것이다. 『삼국유사』(권1, 지철로왕)에는 ‘이찬 박이종’을 보내었다고 하였는

15) 『삼국사기』, 권4, 지증왕 13년 6월.

16) 『삼국유사』, 권1, 지철노왕.

17) 김호동, 『삼국시대 신라의 동해안 제해권 확보의 의미』, 『대구사학』 65호, 2001 참조.

18) 『삼국사기』, 권40, 잡지9, 외관. 智証王6年, 以異斯夫爲悉直州軍主

19) 『삼국사기』, 권4, 지증왕 13년 6월.

20) 이사부는 동해안뿐 아니라 한강 상류 및 대가야 병합에도 나선 장군이다. 이명식, 「신라 증고기의 장수 이사부고」, 『신라문화계 학술발표논문집』, 제25호, 동국대 신라 문화연구소, 2004, 참조.

데, 이사부와 동일인물이다.²¹⁾

지증왕대의 동해 제해권 장악의 선두에 선 이사부는 원정군사령관으로서의 지위를 지니면서 주군제(州郡制) 실시와 함께 임명된 지방관으로서 최초의 군주(軍主)²²⁾였다. 따라서 이사부가 이끄는 군사는 신라 최정예부대였을 터인데, 이러한 군사력으로써도 우산국 정벌이 쉽지 않았다는 사실은 당시 우산국의 군사력이 상당한 수준이었음을 말해 준다. 따라서 <사자바위> 전설에서 신라가 우산국 정벌에 한번 실패하고 두 번째에 비로소 성공하였다고 한 것은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 역사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라의 우산국 정벌은 동해의 제해권 장악을 통한 해산물의 안정적 확보라는 문제보다는 “여진의 침략과 고구려의 압박 등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다.”²³⁾는 해석이나 대고구려 방위체계 구축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정벌이라는 해석²⁴⁾이 가능하다. 또한, 우산국은 왜구의 중간 거점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신라가 우산국 정벌을 통해 동해의 제해권을 확보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였을 것이다. 특히, <우해왕과 풍미녀> 전설에서처럼, 우산국과 대마도가 혼인동맹을 통해 우호적인 연맹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산국의 복속이나 우산국과의 연합동맹 체제 구축은 신라에게 있어서 매우 요긴한 외교적 전략일 수밖에 없었을

21) ‘異斯夫’와 ‘伊宗’은 한자 차자로서 동일한 대상을 가리킨 표현이다. 이사부는 김씨이고 이종은 박씨로 기술되어 있으나, 동일인임에도 불구하고 두 성씨를 함께 쓰는 경우가 많았다. 박제상과 김제상을 함께 기술하는 것도 이러한 표현과 다르지 않다.

22) “실직주를 설치하고 이사부를 군주로 삼았는데, 軍主의 명칭이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삼국사기』 권4, 지증왕 6년 춘2월, 이명식, 『신라 중고기의 장수 이사부』, 『신라문화재 학술발표논문집』, 제25호,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2004, 78쪽 참조.

23) 김윤곤, 『우산국·우산도인의 해상활동과 한동해문화권』(민족문화총서 26),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3, 17쪽.

24) 장창은, 『신라 지증왕의 집권과 대고구려 방위체계의 확립』, 『한국고대사연구』, 45집, 2007.3.

것이다.

<우해왕과 풍미녀> 전설에서 우해왕이 대마도를 정벌하고 대마도주의 셋째 딸인 풍미녀를 데리고 와 왕비로 삼았다고 한 것은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진정성을 갖추고 있다. 우해왕은 왜구의 노략질을 정벌하기 위해 대마도를 정벌하고 혼인동맹을 맺음으로써, 대마도와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었을 터이다.²⁵⁾

해상로를 통한 고구려의 공격과 해상왕국 우산국의 위협으로부터 안정적인 방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신라는 동해안 지역의 확보와 함께 우산국 정벌을 감행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천혜의 지형지세와 막강한 군사적 저항으로, 신라의 우산국 복속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로서는 우산국과 상호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전략상 긴요한 문제였으므로, 두 번째의 정벌을 감행했던 것이다.

(3) 우산국의 자존심

두 번째 공략에서는, 이사부가 '우산 사람들은 어리석지만 사나워서 위엄으로 항복하게 하는 것은 어려우니 계략으로써 굴복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나무 사자를 많이 만들어 전함에 나누어 싣고 우산국의 해안가에 가서 위협해 우산국의 항복을 받아내었다고 하였다. 무력적인 힘만으로는 우산국을 복속시킬 수 없었으며 속임수를 써서 복속시켰다고 하였다. 속임수는 정당한 것이 못되지만, 신라왕이나 이사부의 슬기로 받아들일 수 있다. 정치적 지도자는 슬기로운 지혜 내지는 정치적 술수를 부릴 수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그런데, 이런 전략을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서는 이사부가 제안한

25) 이런 점에서 이 이야기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정치적 이슈가 되어 있는 독도 영유권 문제와도 관련시킬 수 있다.

것이라고 하였으나, 구전에서는 신라의 왕이 이렇게 주문했다고 하였다. 우산국이 패한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니, 신라왕의 슬기로움은 어쩔 수 없이 인정하되, 이사부의 슬기로움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이사부의 존재를 크게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야기꾼들의 의중이 잘 드러난다. 그렇게 말해야 우산국의 후손으로서 자존심을 다소나마 지킬 수 있을 것이라 여겼을 터이다.

나무사자의 위력에 대한 견해도 다르다. 역사에서는 살아있는 맹수로 속여서 항복을 받아냈다고 했지만, 구전에서는 사자의 입에서 불을 뿜었다고 했다. 이야기꾼들은 나무사자를 살아있는 맹수로 착각할 정도로 우산국 군사들이 어리석지는 않았다고 하면서 병기 제작기술, 즉 문화 수준에서 우산국이 신라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이야기꾼들이 우산국 후손으로서의 자존심 훼손을 최소화하고자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나무사자’의 상징성과 주술적 힘의 숭배

나무사자에 대해서는 상징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그 당시의 전투는 육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리에서 이루어졌을 터인데, 나무 사자를 실제 살아있는 맹수로 인식하고 그것을 두려워해서 항복했다는 역사 기술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당시 신라의 조선훈이 상당히 발달했다고는 하나,²⁶⁾ 문화적 사정으로 볼 때 구전설화에서처럼 사자의 입에서 불을 뿜는 전함 건조기술이 발달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나무사자가 상징하는 바는 무엇인가? 권오엽은 우산국에서 “불교를 수호하는 성수로서의 사자, 영혼을 안내하는 정령으로서의 사자 등으로 인식했을 것”²⁷⁾이라는 주장을 거듭해서 펼친 바 있다.

26) 장창은, 앞의 논문, 앞의 책, 115~116쪽 참조.

27) 권오엽, 「신라국과 우산국」, 『일어교육』 제39집, 일어교육학회, 2007, 157쪽 참조.

신라가 불교를 공인하지는 않았으나 우산국을 정벌하는 512년경의 삼국이 불교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상상의 사자가 불법을 수호하고 영혼을 안내한다는 식의 인식은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라가 목우사자로 우산국을 위협한 것도 사자의 그러한 능력을 믿고 취한 계책이었고 우산국은 그것을 두려워한 것이다. …(중략)… 그 사자가 신라의 뜻에 맞는 주력을 발휘할 것으로 믿고 그것에 의한 재앙이 두려워 항복한 것이다. 그야말로 불교에 대한 인식의 차를 바탕으로 하는 판단의 오류가 초래한 결과였다.²⁸⁾

그러나 신라에서의 불교 공인이 527년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나 고구려나 신라의 동해안 제해권 확보 과정에서 불교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물리적 군사력에 의한 통치를 했다는 주장²⁹⁾을 고려할 때, 나무사자를 불교적 수호신 상징으로 확정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따른다. 즉,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할 때, 군사적 무력과 함께 종교적인 동화정책³⁰⁾을 동시에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가의 문제는 유보해 둘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다.

권오엽의 추정대로, 사자는 불교 전래 이전에 이미 수호신으로서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즉, 사자춤에서의 사자가 그러한데, 탈춤마다 사자의 역할이 다소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악귀를 쫓는 신령스러운 동물이었다. 중국의 경우, 사자춤은 서역의 쿠차국(龜茲國: 지금의 新疆省 廣東 부근)에서 비롯되어 한대(漢代)에 중국으로 들어온 것이라 하는데, 수·당 시대에는 각지에서 성행하였다고 한다. 한국에서의 사자춤은 진흥왕 때에 귀화한 우륵(于勒)의 '가야금 12곡' 중 8곡에 사자기(獅子伎)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5세기말 가야연맹의 국풍인 금곡화(金曲化)

28) 권오엽, 『우산국의 종교와 독도』, 『일본어문학』, 35호, 한국일본어문학회, 2007, 608쪽.

29) 김호동, 『한국 고·중세 불교와 유교의 역할』, 경인문화사, 2007, 30~31쪽 참조.

30) 김호동은, 이러한 정책변화가 진흥왕대부터 나타난다고 본다. 바로 앞의 논문, 앞의 책, 32쪽.

化)를 재정립한 것³¹⁾이므로, 가야국에서의 사자무는 훨씬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기록에 근거하여, 박진태는 “사자무가 가야국에 전래된 시기는 진흥왕 13년(552년) 이전으로 소급할 수 있다³²⁾”고 했다. 552년 백제의 마미지가 일본에 건너가 전했다는 기약에도 사자무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정황들로 볼 때, 사자는 신성한 동물로 간주되었음에는 틀림없다. 이사부가 우산국 정벌에 나설 지증왕 때에도 이미 사자에 대한 종교적 상징과 그 주술적 힘을 믿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사부가 전선에 싣고 간 나무사자는 우산국 군사들을 위협하기 위한 맹수이거나 불을 내뿜는 사자형 전함³³⁾이라기보다는 신성성을 지닌 동물로서의 주술적 상징성을 지닌 것으로 일단 해석해 두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겨진다. 신라는 군사력으로 우산국을 감당할 수 없어서 수호신인 사자의 주술적 능력을 빌려서 우산국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었다는 말이다.

우산국에도 수호신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해마다 처녀를 뽑아 수호신에게 바치기도 하였던 것을 보면, 우산국 사람들에게도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켜 줄 수호신이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런데, 우산국은 왜 사자의 주술적 위력에 귀복하지 않을 수 없었을까? 그것은 초월적인 주술력을 동원하는 계책을 세우는 데서는, 용력만 앞세운 우해왕보다 이사부가 앞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31) 김동욱, 『우륵12곡에 대하여』, 『신라가야문화』, 제1호, 청구대학, 1966, 12쪽 참조.

32) 박진태, 『쿠차 사자탈춤의 전파와 한국적 변용』, 『비교민속학』, 제33호, 비교민속학회, 2007, 403쪽.

33) 2009년 5월 9일 한국예술평론가협회에서 주관하는 세미나에서, 이창식은 『지역 축제의 신화적 상상력』(문화저널 21)이란 제목으로, 강릉의 지역 축제에 이사부의 울릉도 정벌을 스토리텔링하자고 하면서 사자선(獅子船)을 만들자는 제안을 한 바 있으나, 사자형 전함을 만들자는 제안은 역사적 진정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단순한 놀이기구 이상의 의미를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5) 타협을 통한 신라와의 연합

우산국은 신라의 종교적·문화적 우위에 스스로 무릎을 꿇고 해마다 토산품을 바치면서 문명적으로 우위에 있는 신라로부터 실리를 취하고자 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우산국이 신라에 귀복했지만, 완전히 패망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 이러한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실제로, 해상왕국 우산국은 이사부의 정벌로 512년에 신라에 귀복(歸伏)하였지만, 지리적 여건 때문에 지배권의 실효를 거둘 수 없었던 신라와 연합동맹을 구축하였으며, 고려 현종(재위 1009-1031년) 때 여진의 침략을 받아 패망할 때까지 그 존재가 인정된다.³⁴⁾

이러한 역사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우해왕의 딸 '별님'을 이사부의 부인으로 보냈다는 모티프는 서사적 개연성을 얻게 된다. 또한, 우해왕이 신라와의 싸움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보다는, 가난한 어부로서 살아갔다는 모티프가 더 설득력을 가질 법하다.

3. 스토리의 재구성

문화콘텐츠화를 위한 이야기의 재구성이란, 인문학적 해석을 통해 기존 이야기의 모티프들을 시간적, 논리적 순서에 따라 재편하는 일차적인 작업을 말한다. 기존의 이야기들이 갖추고 있는 모티프들을 종합하여 서사적 구성논리에 따라 재배치하는 작업인 것이다. 본래의 이야기를 왜곡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미학적 원리에 따라 재해석하여 시나리오 등 다양한 스토리텔링으로 재창조하는 작업은 그 다음에 할 일이다. 재구성이 학자의 몫이라면 재창조는 작가의 몫이다. 재구성과 재창조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

34) 김호동 『독도·울릉도의 역사』, 경인문화사, 2007, 51~61쪽 참조.

1) 시공간적 배경과 인물의 성격

재구성된 ‘우해왕 이야기’를 여러 가지 문화콘텐츠 자료로 활용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의 시공간적 배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시간적 배경 : 우산국이 이사부에 의해 신라에 복속된 512년 언저리.

▫ 공간적 배경

공간1 : 강대한 해상왕국으로 발전한 우산국의 궁성. 궁성에서 각 마을로 내려가는 길이 있다. 우산국 백성들은 육지와 바다를 생업의 터전으로 삼아 살아간다. 대나무와 삼나무 등 선박 건조에 필요한 풍부한 산림자원이 국가의 소중한 자원이다. 지형적 특성상 마을들이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전설 ‘추산장군과 평리장군’에서 보듯이, 각 마을에는 한 명의 장군을 임명하여 다스리지만, 군사력을 집중시키기에는 불리하다.

공간2 : 대마도 왕의 궁궐. 우해왕이 대마도주의 항복을 받아내고, 풍미녀를 처음 만나는 공간.

공간3 : 하슬리주 군주의 공관. 이사부가 우산국 정벌을 위한 계책을 논의하는 곳.

공간4 : 비파산을 배경으로 한 어느 공간. 우해왕이 풍미녀를 위해 열두 시녀와 함께 백일 동안 장례를 치르는 장소.

공간5 : 바닷가. 우해왕이 가난한 어부로 살아가는 오두막.

‘우해왕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로는 우해왕, 풍미녀, 대마도주, 이사부, 신하, 백성 등이 있다. 이들 인물 가운데, 그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인물은 많지 않다. 전설의 줄거리를 통해, 우해왕, 풍미녀, 이사부의 성격이 어느 정도 파악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이야기를 토대로 만들어지는 문화콘텐츠에서는 인물의 성격이나 인물관계를 적극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우해왕은 신체가 건장하고 기운이 세다. 바다를 마치 육지처럼 다닐 정

도로 항해술이 탁월하다. 왜구의 노략질을 근절하기 위해 대마도 정벌을 감행하는 데서는 대범하다. 싸움으로 대마도주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대마도주의 항복을 받아내는 것으로 보아서는 냉철하고 이지적인 성격을 지녔다고 하겠다. 풍미녀가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 우산국으로 데려가 주기를 죽기로 갈망한다는 말에 뿌리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따뜻한 인간애를 지니고 있다. 풍미녀를 왕비로 맞아들인 후에는 풍미녀의 그 어떤 요구도 거절하지 않을 정도로 애정에 빠져드는 인물이다. 백성들의 삶을 돌보지 않고 국사에도 무관심할 만큼 풍미녀와의 사랑에 몰두하는 성격이다. 풍미녀를 왕후로 맞아들이기 전까지는 백성들의 삶을 일일이 보살피는 자상함이 풍미녀에 대한 애정몰입으로 나타난 것이다. 고집스럽고 과격하며 난폭한 성격도 없지 않다. 신하들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신라군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보고도 무시하면서, 오히려 그런 신하를 바다에 던져 넣었다는 데서 이런 성격을 읽을 수 있다. 신라군과의 전투에서 보듯이, 상황을 읽어내는 판단력이 빠르고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두 번에 걸친 신라군의 침략에도 지지 않았다. 백성들이 사자를 두려워하여 전의를 상실하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 행복하는 길을 선택하였던 것이다.

풍미녀는 그 이름이 뽐어내는 이미지로는 풍만한 미인을 그려낼 수 있다. 대마도의 셋째 공주로서 곱게 자랐기 때문에, 세상 형편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직 자신밖에 모르는 인물이다. 세상의 여론이 어떻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만 있다면 그만이다. 다른 욕심은 없다. 화려하고 호화스러움을 탐욕하여 신하들이나 백성들로부터 사치스럽다는 핀잔을 받는다. 기질은 연약하여 우해왕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려 하면서 우해왕을 극진히 사랑한다. 그런 만큼, 왕비로서의 자질이나 포용력은 갖추지 못한 셈이다.

이사부는 신라국 하슬라주의 군주이다. 신라의 원정군사령관답게 정세에 대한 판단력이 탁월하며, 지략이 뛰어난 책략가이다. 두 차례에 걸친

우산국 정벌 전쟁에서 보여준 정세 판단력과 나무사자로 위협하여 우산국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치밀한 지략이 돋보이는 인물이다. 귀족다운 품모에도 불구하고, 영토 확장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단호함이 엿보이기도 한다. 우산국 정벌에서 일차적 실패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군사 훈련을 독려하는 추진력을 지녔는가 하면, 우산국을 쉽게 정벌할 수 있는 책략을 두루 구하기도 하는 개방성을 간직한 인물이다.

대마도 왕은 역시 정세판단력이 뛰어나며 지혜롭다. 우산국과의 결혼동맹을 추진할 만큼 외교적 능력도 뛰어나다 할 수 있다. 강자에게는 쉽게 자신을 굽혀 개인과 국가의 안위를 도모할 줄 아는 정치가이다.

기타 신하들과 백성들 등이 등장하지만, 성격을 추출해 낼 수 있을 만큼 역할 부여가 되어 있지 않다. 우해왕 및 풍미녀와의 갈등을 빚는 인물이기도 하므로, 이들에 대한 허구적 형상화가 이 이야기를 활용한 문화콘텐츠의 품격을 드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물 사이의 갈등은 뚜렷하지 않다. 우해왕과 신하들 및 백성들 사이의 대립, 풍미녀에 대한 백성들의 비난과 증오 정도가 이 이야기에 드러나는 갈등의 전모이다. 따라서 예술적 콘텐츠 제작에서는 인물들 사이의 갈등을 극명하고도 치열하게 조성할 필요가 있다.

2) 스토리 라인

‘우해왕 이야기’의 문학적·역사적 해석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스토리 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성과물은 ‘우해왕’에 관한 원천자료들을 종합하여 응용 콘텐츠로 변형시킨 자료라 할 수 있다.

- 01: 우해왕은 기운이 장사요, 신체도 건장했으며, 바다를 마치 육지처럼 주름잡고 다녔는데, 우산국은 우해왕대에 가장 풍비한 문화와 강력한 국

사력을 갖추고 있었다.

- 02: 왜구들이 종종 우산국에 노략질하였는데, 왜구의 본거지는 주로 대마도였다.
- 03: 우해왕은 군사를 이끌고 대마도로 건너가 대마도의 왕을 만나서 담판을 하였다.
- 04: 대마도 왕의 항서를 받아내고, 서로 화친하기로 하였다.
- 05: 대마도에서 푸짐한 대접을 받았다.
- 06: 우해왕은 대마도 왕의 셋째 딸 '풍미녀'를 데리고 왔는데, 풍미녀는 열두 시녀와 학 한 마리를 함께 데리고 왔다.
- 07: 우해왕이 풍미녀를 왕비로 맞이하자 백성들은 태평세월을 구가하며 우해왕과 풍미녀를 송축했다.
- 08: 우해왕은 풍미녀와의 사랑에 빠져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다.
- 09: 풍미녀는 점점 사치하기를 좋아하였고, 우해왕은 풍미녀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려 했다.
- 10: 우산국에서 구하지 못할 보물을 풍미녀가 가지고 싶어 하면, 우해왕은 신라에게까지 신하를 보내어 노략질을 해 오도록 하였다.
- 11: 이에 항의하는 신하가 있으면 당장에 목을 베거나 바다에 처넣었다.
- 12: 백성들은 달라진 우해왕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풍미녀를 마녀라고 여겼다.
- 13: 신라가 곧 쳐들어오리라는 소문이 있다는 보고를 하였으나, 우해왕은 도리어 그 신하를 바다에 처넣었다.
- 14: 그 이후로 신하들조차 왕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 했다.
- 15: 우해왕과 풍미녀 사이에는 딸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이 별님이었다.
- 16: 우산국의 노략질을 당한 신라의 백성들이 우산국 토벌을 왕에게 호소했다.
- 17: 신라왕(지증왕)은 하슬라주의 군주 이사부로 하여금 군사를 이끌고 우산국을 쳐서 노략질을 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명을 내렸다.
- 18: 이사부가 수많은 전함을 이끌고 우산국으로 향했다.
- 19: 외적의 침입을 알리는 나팔소리가 울려서 바라보니, 왕이 바라보니 갈

- 매기 떼만큼이나 많은 돛단배가 몰려오고 있었다.
- 20: 우해왕은 용맹을 되살려 우산국의 배들을 모두 모으고, 자신이 선두에 서서 신라군과 싸웠다.
- 21: 신라의 군사는 여러 날 동안의 항해로 지친 나머지 상륙조차 못해 보고 쫓겨났다.
- 22: 이사부는 하슬라주로 돌아와 다시 우산국 정벌 계획을 세웠다.
- 23: 신라왕은 계락을 써서 항복시키라는 명을 내린다.
- 24: 이사부는 우산국을 정벌할 계락을 널리 모아 다시 우산국에 쳐들어왔다.
- 25: 우산국에서도 군사 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아, 이번에도 신라군에게 밀리지 않았다.
- 26: 이사부가 배에 싣고 간 사자를 보이고 사자의 입을 통해 불을 뿜었다. (사자의 맹수적 위력을 내세워 위협했다.)
- 27: 우산국 군사들이 동요하여 항복할 뜻을 보이자, 우해왕은 투구를 벗고 항복하였다.
- 28: 우해왕은 외동딸 ‘별님’을 이사부의 아내로 보낸다.
- 29: 풍미녀가 죽자, 우해왕은 왕비를 잃은 슬픔에 젖어 비파산 아래에서 열두 시녀에게 비파를 연주하게 하면서 백일 동안의 장례를 치른다.
- 30: 백 일째 되던 날, 학이 학포 쪽으로 날아갔다.
- 31: 우해왕은 궁궐을 떠나, 가난한 어부로 살아간다. (자결한다.)

4. 결론-활용방안

지금까지, ‘우해왕’ 관련 전설들에 대한 문학적·역사적 해석을 거쳐, 인물의 성격 제시와 함께 스토리라인을 재구성해 보았다. 이러한 인문학적 연구 성과의 효용 확대를 위해서는 그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해 둘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울릉도의 관광 산업화에 한정하여, ‘우해왕 이야기’의 활용 방안을 제시해 본다.

오늘날 울릉군의 가장 큰 생산성은 관광산업에 있다. 관광산업의 효용증대는 관광객을 얼마나 더 머물게 하는가의 문제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이를 위해서는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 볼거리나 즐길 거리로는 문화관광만큼 효율적인 것도 없다.

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인 비용 문제를 감안하지 않을 수도 없는 실정이므로, 저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부터 정책적인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즉, 정책적 지원 방향과 원칙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스토리 문화콘텐츠의 개발도 어느 단계에 우선순위와 가치 중점을 두고 정책을 입안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스토리 문화콘텐츠 개발 및 운용과 이에 따른 단계별 정책을 구체화하여 제안해 보기로 한다.

첫째, 문화원형, 문화콘텐츠 원천자료의 지속적인 발굴이 필요하다. 문화원형은 창의력과 상상력의 원천인 창작재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설화 조사, 고분군 발굴, 생활터전 지표조사 등 문화콘텐츠 원천자료의 발굴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할 대상이다.

스토리 자료 발굴에 한정하여 말한다면, 구비설화 현장조사 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적인 예로, '울릉군지'를 지속적으로 발간하면서 기존의 군지나 자료들을 단순히 베껴내는 차원에 머물러 있어서는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된다. 다시 말하자면, 울릉군지에서 설화를 집대성하는 편장이 마련되었다면, 설화의 전승 과정이나 전승 원리를 파악하는 자료적 가치를 고려하여 그때마다 현장 조사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원천 자료를 스토리뱅크로 만들어 충실히 제공하는 것 또한 긴요한 과제이다.

둘째, 발굴된 문화원형을 디지털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문화원형을 복원 또는 재구성하여 문화원형의 문화산업자원화를 꾀하여야 한다.

문화산업이 기존의 오프라인에 기반을 둔 산업형태라면, 문화콘텐츠산업은 새로운 디지털기술에 기반을 둔 문화산업이라 할 수 있으므로,³⁵⁾ 문화콘텐츠회는 문화원형을 학문적으로 해석하거나 고증하여 재구성하는 작업과 아울러, 이를 디지털 환경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조성을 포함한다.

울릉도 문화원형의 문화산업자원화를 위해서는, ‘울릉문화콘텐츠’(가칭) 논문집의 정기적인 발간을 기획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각 대학의 울릉도·독도 관련 연구소에서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하나. 울릉군의 정책 방향을 충족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최소의 비용으로 유용성을 확보하려면, 매년 이루어지는 울릉도·독도와 관련한 콘텐츠를 일정한 분류체계에 따라 목록작업을 해야 한다. 아울러서, 이를 유비쿼터스(ubiquitous) 환경에 노출시켜 문화산업 종사자들이 이런 지식정보에 쉽게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대부분의 문화콘텐츠산업의 성과물들은 지식정보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있으며, 아무리 상상력을 동원하고 가공의 이야기를 만든다 하더라도, 기본 원천소스가 없이는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이다.³⁶⁾ 문화원형의 문화콘텐츠회는 그 자체로도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닐 뿐 아니라 창작소재로서 활용되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문화콘텐츠의 개발과 관리를 위해, 인터넷 환경에서의 기초인프라 구축 정책은 그만큼 요긴한 일이다.

이 단계에서의 사업이 단번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회문화적 맥락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개별적 문화콘텐츠의 복원 또는 재구성에 부여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모티프로 재구성한 ‘우해왕 이야기’는

35) 김기덕,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 사회적 효용』, 『인문콘텐츠』, 제5호, 인문콘텐츠학회, 2005, 10쪽 참조.

36) 김기덕, 앞의 논문, 앞의 책, 10쪽 참조.

바로 이 단계의 연구에 해당하는 성과물인 셈이다. 이것을 서사적인 기술로 전환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셋째, 문화원형이 창작소재로 새롭게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문화콘텐츠산업에 곧바로 활용된다는 보장은 없다. 유통과 소비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예산상의 한계로 인해, 드라마 <선덕여왕> 제작지원에 경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선 사례를 본보기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손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시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울릉도는 우산국의 옛 땅이라는 이미지만을 가지고도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다. 우산국 이미지 재현으로 관광객들이 울릉도에 오면 뭔가 색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우해왕 이야기'는 보편적 정서를 내재화하고 있으며, 지역적인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는 문화적 정체성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로 확장이 가능한 스토리이다. 이 스토리를 활용하여 개발할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사업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우해왕 이야기'를 소재로 한 공연 대본 또는 시나리오 대본을 공모하고, 이를 전문극단에 의뢰하여 무대예술(연극, 뮤지컬, 오페라)이나 영화로 제작하여 지역민이나 관광객들을 상대로 매년 몇 차례 상영하거나 공연하는 사업³⁷⁾
- ② 주민들을 참여시켜, 우해왕의 행차 장면 등 우산국 이미지를 드러낼 수 있는 퍼포먼스를 만들어 배의 입항이나 출항 시간에 맞추어 공연하는

37) '안용복 이야기'는 이미 부산에서 희곡 등으로 창작되어 무대화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부산 동래 중심으로 이야기가 짜여 있어서 울릉도 중심의 창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주시에서는 연극을 만들어 경주시 공무원 가족들을 위한 특별공연시간을 잡아 시행하기도 한다. '우해왕 이야기'는, 이슈가 되어 있는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한 재창조 작업이 요구된다.

사업

- ③ 우해왕 이야기의 특정 장면을 레이저 쇼 등으로 만들어 야간 시간대에 보여주는 사업
- ④ 나리분지에 우산국의 궁성과 민속촌을 재현하고, 스토리텔링이 있는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
- ⑤ 남양에서 석문동(우산국의 석문 복원)을 거쳐 나리분지의 우산국 궁성에 이르는 옛길, 천부에서 홍문동(우산국으로 통하는 성문 복원)을 거쳐 우산국의 궁성에 이르는 옛길 조성 사업

‘우해왕 이야기’는 이처럼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되살려 낼 수 있고, 이러한 스토리콘텐츠의 산업화는 울릉도 관광 행태를 문화관광으로까지 확장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삼국사기』

『삼국유사』

여영택, 『울릉도의 전설·민요』, 정음사, 1974.

『울릉문화』, 제2호, 울릉문화원, 1997.

『개척 백년 울릉도』, 울릉군, 1982.

『울릉군지』, 울릉군, 1988. 2007.

2. 논저

권오엽, 『신라국과 우산국』, 『일어교육』 제39집, 일어교육학회, 2007. 139~162쪽.

_____, 『우산국의 종교와 독도』, 『일본어문학』, 35호, 한국일본어학회, 2007. 599~622쪽.

김기덕,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 사회적 효용』, 『인문콘텐츠』, 제5호, 인문콘텐츠학회, 2005. 3~28쪽.

김윤곤, 『우산국·우산도인의 해상활동과 한동해문화권』, 민족문화총서26 영남대민족문화연구소, 2003. 9~109쪽.

김호동, 『삼국시대 신라의 동해안 제해권 확보의 의미』, 『대구사학』 65호, 2001. 43~81쪽.

_____, 『한국 고·중세 불교와 유교의 역할』, 경인문화사, 2007. 1~391쪽.

_____, 『독도·울릉도의 역사』, 경인문화사, 2007. 1~297쪽.

박진태, 『쿠차 사자탈춤의 전파와 한국적 변용』, 『비교민속학』, 제33호, 비교민속학회, 2007. 391~415쪽.

배영동, 『문화콘텐츠화 사업에서 '문화원형' 개념의 함의와 한계』, 『인문콘텐츠』 제6호, 인문콘텐츠학회, 2005. 39~54쪽.

서울대학교 박물관, 『울릉도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1, 서울대학교 박물관학술총서 6, 1997.

여세주, 『경주 story tour 개발 전략 연구』, 『문화콘텐츠연구』, 창간호, 경주대학교, 2003. 164~178쪽.

윤재운·장희홍, 『한국 고대의 해양문화와 이사부』, 『교육연구』, 제4권1호, 대구대 교

육연구소, 2008. 19~36쪽.

이명식, 『신라 중고기의 장수 이사부고』, 『신라문화제 학술발표논문집』, 제25호,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2004. 66~95쪽.

장창은, 『신라 지증왕의 집권과 대고구려 방위체계의 확립』, 『한국고대사연구』, 45집, 2007.3. 97~137쪽.

함복희, 『야담의 문화콘텐츠화 방안 연구』, 『우리문학연구』, 제22집, 우리문학회, 2007. 149~181쪽.

Abstract

A study on how to Develop and Use the Story Contents of the legend of 'King Woohae' in the Kingdom of Woosan

Yeo, Se-Joo

This study aims to develop contents of 'Story of King Woohae' and present how to use it in detail, which might establish the cultural identity of the Kingdom of Woosan(于山國, Ullung Island).

'The Story of King Woohae' was inserted into several legends scattered with small fragments. The story is with related to the historical fact of the Kingdom of Shilla conquered by the Kingdom of Woosan and the legends such as <King Woohae and Poongminyeo>, <Lion Rock 1, 2>, <Bipasan Mountain and Hakpo> and more. These stories were combined together during transmission process and transformed and gradually expanded the narrative structure to clearly secure the position as a legend based on the historical facts and detailed proofs. The addition of historical fact to the natural object, lion rock was derived from the connection of tree lion that carried by General Isabu to the Lion Rock; the combination of <King Woohae and Poongminyeo> and these might be caused from sharing collapse motif of the Kingdom of Woosan.

It is not important which was combined first and which was last among natural object, Lion Rock(Lion Rock 1), historical fact, and legend of <King Woohae and Poongminyeo>. The important things are the expansion of motif such as Tugubong Peak and Bipasan Mountain as well as <Lion Rock 2> and the acquisition of time while mixing these motifs. Thus, 'The Story of King Woohae' was turned out to have A narrative logic with power of persuasion compared to the historical situation at that time.

In this study, the storyline of 'Story of King Woohae' was restructured

through this literary and historical interpretation and organized the personality of characters and background of time and space. Furthermore, this study suggested the alternative for industrialization of cultural contents. Based on this story contents, a variety of culture industrialization will be very useful for Ullung Island tourism industry such as production of films and plays, performance and laser show for each scene, recreation of the castle of Woosan with storytelling and experiential tourism.

Keyword : the kingdom of Woosan, Ullung Island, story contents, culture tourism, the legend of king Woohae

여세주

경주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주소 : (780-712) 경주시 효현동 산42-1

전화번호 : 010-3006-2125

전자우편 : yeosj@gju.ac.kr

이 논문은 2010년 4월 29일 투고되어
2010년 6월 9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0년 6월 10일 게재 확정됨.